

영암군, 생활인구 50만 달성 가속도 낸다

유치보고회서 93개 사업 공유 논의 방문·체류·정주 선순환구조 정착화 3대 전략 수립 농촌 스마트 활성화 등 “분기별·중장기별 목표 설정 관리”

전라남도 영암군이 ‘가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 ‘살고 싶은 영암’ 등 3대 전략으로 생활인구 50만명 목표 달성에 나섰다.

28일 영암군에 따르면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변화된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암군 생활인구는 처음 산정된 지난

해 1월 2만6911명을 기록했고 같은 해 3분기인 7월 26만7564명, 8월 30만5554명, 9월 30만855명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연초 21만명 수준이었던 생활인구가 왕인문화축제 개최, 기찬랜드 개장 등 다양한 관광 축제·행사를 거치며 30만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영암군은 군청에서 ‘생활인구 유치 시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지난달 수립한 ‘생활인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22개 부서 93개 사업을 공유·논의한 바 있다.

영암군은 이 사업들을 추진해 방문·체류·정주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첫째 전략으로 가보고 싶은 영암을 위

한 실천계획으로는 △오직 영암에서만 즐긴다! 관광·축제 △전통과 현대의 조화 문화·예술 △쉽표가 있는 삶 여가 △대외교류로 만드는 더 큰 영암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영암 여행 원플러스 원’ 대동공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남도음식거리 조성’ ‘디지털 영암군민 확보’ 등 사업이 진행된다.

둘째 전략인 머물고 싶은 영암의 실천 계획은 △농촌에서 찾은 제2의 인생 귀농·귀촌 △취업 기회의 확대 일자리가 추진된다.

영암군은 ‘농촌 체류 스마트 활성화’ ‘위케이션센터 조성’ ‘영암형 취직사회 책임제 운영’ 등의 사업으로 뒷받침에 나선다.

셋째 전략으로는 살고 싶은 영암을 목표로 △평화로운 삶 주거 △지방 소멸 대비 인구·교육 △다양성 존중 외국인 정주의 실천계획을 세웠다.

‘지역활력타운 조성’과 ‘미래형 농촌 공간 조성’, ‘영암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을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생활인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기별·중장기별 생활인구 확대 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생활인구 50만 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영암에서 어울리며 즐기게 만들자”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어린이·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

전라남도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1004점 미니 예술 정원’ 프로그램은 오는 5월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원예치료사와 함께 정원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나만의 작은 정원’과 섬의 자연을 동기로 한 ‘미니 예술 정원’을 만들면서 미적 감각과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초등학교 저학년용을 위한 ‘몸으로 느끼는 예술 정원’ 프로그램은 5월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자연을 주제로 한 행위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저녁노을미술관과 분재정원을 거닐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자극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저녁노을미술관과 분재정원에서 진행되며 신안군민을 우선으로 각 1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5월2일까지 4일간이며 전화(061-240-5441)로 신청 가능하다.

신안=홍일갑 기자

최대 30% ‘햇양과 할인전’ 맛달무안포, 내달 9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달무안포’이 본격적인 햇양과 출하 시기를 맞아 할인 기획전을 시작으로 김 특가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오는 5월9일까지 진행되는 ‘햇양과 할인전’에서는 맛과 품질이 뛰어난 무안 햇양과를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1인당 2매의 할인 쿠폰이 제공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햇양과를 구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어 가정의 달을 맞아 5월2일부터 15일까지는 ‘김(感)동 기획전’이 열린다.

김과 해초류 전 품목을 대상으로 20% 할인 쿠폰이 1인당 2매 제공되며 실속 있는 선물용 품목이 주를 이뤄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매월 둘째 주 평일에 열리는 특가 행사 ‘오!맛데이’는 5월12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된다. 표고버섯, 군고구마, 양파즙, 떡볶이떡 등 4개 품목에 대해 40% 특별 할인이 적용된다.

또 지난 1년간 누적 구매 실적이 높은 회원 100명을 선정해 방울토마토 2kg을 증정하는 ‘구매왕 감사 이벤트’도 진행해 꾸준히 쇼핑몰을 이용해 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 향토밭에서 정성껏 키운 햇양과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고자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무안의 우수한 먹거리를 경험하고 지역 농가에도 따뜻한 응원이 되는 소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접수 무안군, 관내 1만7431호 대상

전라남도 무안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43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 22일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무안군청 홈페이지(www.mua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30일부터 5월29일까지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군은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 결정·공시하게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정비 본격화 강진군, 1억원 예산 투입 추진

전라남도 강진군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8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과 생활시설 인근에 있는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진군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정비 사업을 이어오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실제 피해 예방 사례도 늘어나며 지역 내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강진군의 설명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관내 36개소를 대상으로 총 82주의 위험 수목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수목은 지난 1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았으며 2월과 3월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본격적인 정비 작업은 6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은 정비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공공용지 내 위험 수목과 정자목 △당산나무 등 공공성이 있는 사유지 수목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소유지 내 수목 △일반 가정의 위험 수목 순으로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무안군 청계면 청년회 직원들이 지난 20일 승달산 철쭉공원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철쭉 100주를 식재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청계면 청년회, 승달산 철쭉공원 환경정화

전라남도 무안군은 청계면 청년회 회원 20여명이 최근 승달산 철쭉공원에서 시설물을 정비하고 철쭉 100주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2005년부터 청년회가 매년 이어온 ‘철쭉공원 가꾸기’의 일환으로, 지역의 자랑이

자 상징인 승달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회원들은 철쭉공원 정비뿐만 아니라 등산로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산불 조심 캠페인’도 함께 펼치며 자연 보호의 의미를 더

했다.

한편 청계면 청년회는 지난달에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찾아 청소 봉사를 펼치는 등 온정을 나눴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사랑 실천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청정 바다 미식 여행’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최

5월3~6일, 해변공원 일원

전라남도 완도군의 대표 축제인 ‘2025장보고수산물축제’가 오는 5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드높이고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청정바다로 떠나는 치유와 미식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프로그램과 공연, 문화 행사 등을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다.

축제 첫날인 5월3일에는 ‘장보고 고유제’를 시작으로 개막식에서는 ‘푸른바다의 전설 장보고의 귀환’이라는 주제의 공연과 장보고 대사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

마 ‘해신’ 방영 20주년 기념 특별 콘서트 가 진행된다.

콘서트에는 완도 방문의 해 홍보 대사인 안성훈과 가수 이은미, 신용재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이다.

5월4일에는 ‘전통 노 젓기 대회’, 트로트 가수 김수찬이 함께하는 ‘청해 가왕’, 5월5일에는 ‘청해 어린이 어울림 한마당’,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225m의 전복 해조류 치유 김밥 만들기’, 국민밴드 YB의 ‘힐링 웨이브 블루 콘서트’ 등이 준비돼 있다.

5월6일에는 완도군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해양치유를 주제로 한 ‘해양치유 특화 음식 읍면 경연 대회’와 폐막 행사에는 가수 박서진이 함께하는 ‘Sea You 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이자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대나무 바다낚시’와 ‘전복 따기 체험’, 어린이들이 10여종의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완도 왔섬 키즈 월드’, 완도에서만 자생하는 완도호랑가시나무에 소원을 적어 거는 ‘완도호랑가시나무 소원 존’ 등이 준비됐다.

전복과 광어 등 싱싱한 완도 수산물을 시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완도푸드마켓’과 완도산 해조류 등을 판매하는 ‘완도푸드마켓’도 운영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관광 혜택이 마련돼 있으니 우리나라 수산 1번지, 해양치유의 중심지 완도를 찾아 행복한 추억 쌓으시길 바란다”며 “완도만의 축제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